

EDU-14 한눈에 보기

필수생활을 먼저 보호하고 연체 단계에 맞는 합법적 조정과 피해구제 경로를 찾는다.

왜 배우나요?

채무위기에서는 빚을 빨리 없애는 것보다 생활을 지키며 합법적인 선택지를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

필수개념

- 상환곤란: 약정대로 갚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어려운 상태입니다.
- 연체: 약정한 지급일을 넘긴 상태입니다.
- 추심: 채권자가 채무의 지급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.
- 불법사금융: 미등록 영업·법정기준 위반·불법추심 등이 있는 사금융입니다.
- 채무조정: 상환능력에 맞게 이자·기간·상환액 등을 조정하는 여러 절차입니다.

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이해하기

- 연체는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한 상태이며 시간이 지나면 비용과 추심·신용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.
-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새 빚으로 기존 빚을 막으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-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은 빚의 존재와 별개로 신고·상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
- 채무조정·개인회생·파산은 조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소득·재산·채무 자료를 갖춰 공적 상담을 받습니다.

핵심 4문장

- 연체를 숨기고 새 빚으로 막을수록 조정에 쓸 소득과 증거가 줄어들 수 있다.
- 채무조정은 빚을 없애 주는 단일 제도가 아니라 채무 종류·연체기간·소득·재산에 따른 여러 절차다.
-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정한 채무조정 요청, 연체이자, 추심연락, 채권양도 등에 규칙을 두지만 모든 채무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.
- 협박·지인 연락·야간 반복 연락·선입금 요구는 참지 말고 기록하고 신고한다.

새로 확인할 생활 주제

- 도박 채무는 돈 문제와 중독 회복을 함께 다룹니다: 도박 결제·앱 접근을 차단하고 1336에 회복상담을, 신용회복위원회·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채무상담을 별도로 요청합니다.

판단 5단계

-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 등 필수생활비 바닥선을 먼저 정한다.
- 채권자·잔액·금리·담보·보증·연체일을 한 표에 적는다.
- 대부업체 등록과 계약서·이자·상환계좌를 확인한다.
- 자체조정·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절차의 대상·효과·비용·기간을 상담한다.
- 추심 연락은 일시·번호·내용·제3자 접촉을 기록하고 위험하면 즉시 신고한다.

도움 요청

추가 손실을 멈추고 사실·증거·요구·기한을 적어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.

내용 기준 2026-08-24 · 다음 점검 2026-11-20 · 2026년 8월 제1판